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Information Literacy: Ident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Undergraduate Students

오 의 경(Oh, Eui Kyung)**

장 혜 란(Chang, Hye Rhan)***

목 차

1. 서론	3. 4 데이터 분석 방법
2. 선행 연구	4. 데이터 분석
3. 연구 설계	4.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3. 1 변인의 설정과 가설	4. 2 변인의 기초 통계량
3. 2 측정 도구의 설계	4. 3 가설의 검증
3. 3 데이터 수집 방법	5. 결론

초 록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에 대한 노출, 각종 정보원에 대한 경험, 정보 이용 관련 교수진의 조언, 개인적 배경 등을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실제 능력을 종속 변인으로 추출하고, 대학생を対象으로 한 측정도구를 고안하여 조사를 수행한 후, 관련 요인의 현황과 요인간 관계 및 영향력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보리터러시의 개인별 집단별 차이, 낮은 도서관이용교육 노출과 교수진의 조언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각종 정보원 이용 경험, 성별과 전공계열 등이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사회의 인식전환, 이용교육의 실질적 변화,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study is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literac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exposure to related education, use experiences in information resources, advice of the faculty, individual background are considered as variables affecting information literacy attitudes and performance. A questionnaire was devised and collected data from 628 students. Then 24 hypotheses were tested statistically. Descriptive analysis shows differences in information literacy, lower exposure to library instruction, and lack of the faculty advice. Results of the hypotheses testing shows computer and internet education, use experience of the various information resources, gender and major areas of study as factors affecting information literacy.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literacy.

키워드: 정보리터러시, 영향요인, 노출, 경험, 교수진의 조언, 개인적 배경, 태도, 능력
Information Literacy, Factors, Exposure, Experiences, Faculty Advice, Personal Background, Attitudes, Performance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강사(ohspace@nate.com)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chrhan@sm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1월 30일

1. 서론

21세기 삶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이다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여, 소재를 알고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라고 할 수 있다.

정보리터러시는 1974년 Zurkowski가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지만, 이미 130여 년 전부터 참고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서관이용교육 범주에서 논의되어온 것으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 1989년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이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정보가 필요한 때를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에 접근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나아가 정보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이것은 많은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양적 팽창 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견해가 실린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질적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문제는 더욱 심

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정보환경의 발전에 적응하고 정보 이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대학의 공식적인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보화 종합방안은 대학 구성원 전체가 일정 수준의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둘 것을 계획하였으나(교육인적자원부 2002, 48-54), 그 실천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 도구를 설계하여, 현재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와 요인들의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구명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현황을 이해하며,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정보리터러시 진흥에 기여할 유용한 정보를 창출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내 연구¹⁾

강혜영(2002), 이현실(2003) 등은 국외의 정보리터러시 개념과 그 하부영역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리터러시 개념 정립과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편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종상(2001)은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교육과 이용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용교육이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숙(2001)은 문제극복 프로세스에 맞추어 구성된 정보소양 교육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정보문제해결과정 각 단계에 반영되어 구조화되어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고영만(2004)은 외국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되고 있는 정보문해교육을 토대로 13개의 모듈로 구성된 일반 기초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아 이 모형이 정보문해교육에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윤상림(2005)은 성공적인 미국의 온라인튜토리얼 모형을 분석하고 정보이용교육 담당교수와 사서의 인터뷰,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온라인정보이용능력 튜토리얼 모형을 제안하였다.

좀 더 최근의 연구로 이정연(2005)은 정보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의 범위와 기

준을 설정하고, 온라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의 보완을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요소와 수준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분야에서 서진완(2000)은 Eisenberg & Berkowitz(1996), Doyle(199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등의 정보리터러시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및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정보화정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ICT 능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2.2 국외 연구

국외 정보리터러시 연구는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보리터러시 측정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Maughan(2001)은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에서 199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4학년 대상의 정보리터러시 평가 결과를 시간의 경과를 두고 분석하였다. 평가 내용은 도서관 기술에 대한 자가진단과 5가지 기본적 테스트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banoglu(2003)는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적용

1) 국내 연구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정보이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소양 정보문해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정보리터러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만,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표현을 존중하는 뜻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하여, Hacettepe University의 정보관리학과 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와 컴퓨터리터러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정보리터러시와 컴퓨터리터러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대체로 높았으나,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보리터러시와 컴퓨터 리터러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두 변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Neely(2000)는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모두 포함한 대학 생들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노출, 경험, 교수와의 관계, 태도, 능력의 5가지를 관련 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가지 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영향력에 있어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궁극적으로는 정보이용자의 적합성 판단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Dunn(2002)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를 평가하였다.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자료에 대한 노출, 연구수행 능력, 컴퓨터 및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연구수행능력이 우수하고, 도서관 이용 문제가 적을수록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관찰과 포커스 그룹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수진의 참여와 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Amstutz & Whitson(1997)은 University of Wyoming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보원의 이용 행태와 학생들의 정보접근기술(information access skill)에 대한 책임의식과 영향력에 대

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교수와 사서의 협력이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Samson & Millet(2004)는 신입생들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조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조교에 의해 습득된 리터러시 수준과 도서관오리엔테이션에 의해 습득된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자를 위한 정보리터러시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교육자가 학생들의 정보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개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국내의 정보리터러시 연구는 최근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정연(2005)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를 보면,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는 물론, 각종 정보원 및 정보기술에 대한 경험 및 개인적 요인과 영향력 그리고 리터러시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의 개발과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변인의 설정과 가설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과 정보리터러시 사이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에 대한 노출, 각종 정보원·정보기술에 대한 경험, 정보이용과 관련된 교수진의 조

언, 그리고 개인적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태도와 측정된 정보리터러시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가설 1-1.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1-2.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1-3. 컴퓨터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1-4. 컴퓨터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1-5. 인터넷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1-6. 인터넷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2.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가설 2-1. 인쇄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2-2. 인쇄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2-3. 전자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2-4. 전자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2-5.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2-6.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2-7.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2-8.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3.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가설 3-1.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3-2.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4.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

가설 4-1. 정보리터러시 태도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

가설 4-2. 정보리터러시 능력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

가설 5. 개인적 배경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가설 5-1. 성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5-2. 성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5-3. 학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5-4. 학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가설 5-5. 전공계열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

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5-6. 전공계열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3. 2 측정도구의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구성은 Neely Test(Neely 2000)의 틀을 유지하였으나, 조사 목적과 연구 대상의 환경에 맞도록 수정·증보하였다. 특히, 태도 변인에 관한 문항은 Doyle(1992)의 10가지 정보지식인 특성이외에 정보윤리를 추가하였고, 능력 변인에서는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2000)의 5가지 표준안을 근거로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영역별 측정 문항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각종 ICT 관련 지표들, 국민 NIT(National Information Competence Test) 도구, KDQ(Korean Digital Competency Quotient) 검사 도구를 참고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2005년 7월에 만들어졌고,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상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노출, 경험, 조언, 태도, 능력, 개인적 배경 등 6개 변인 17개 세부 항목의 32개 측정요소에 대한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인별 조사 항목과 측정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인별 조사항목과 측정요소

변인	조사항목	측정 요소
노출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이수여부 도서관이용교육 형태/빈도
	컴퓨터 이용환경 및 교육	컴퓨터 보유 여부 컴퓨터교육 이수 여부 컴퓨터교육 형태/빈도
	인터넷 이용환경 및 교육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교육 이수 여부 인터넷 교육 형태/빈도
경험	정보원 이용 경험	인쇄정보원 경험정도 전자정보원 경험정도
	컴퓨터 이용 경험	각종 프로그램 경험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 경험	1일 평균 접속시간 인터넷 서비스 경험정도
조언	교수가 정보이용을 조언한 정도 조언에 대한 만족도	
	태도	정보지식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 정보윤리에 대한 태도 (인용, 저작권)
능력	정보요구의 인식 및 표현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문제 범위 결정 정보원의 특성
	정보 접근	웹 브라우저의 특성 탐색방법
	정보 평가/통합	탐색 후 평가/통합 과정
	정보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 인터넷 서비스 활용능력
	정보 윤리	네티켓 저작권 인용
개인 배경	성 학년 학부, 학과/전공계열	

3. 3 데이터 수집 방법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의 일반적 수준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조사는 2005학년도 2학기 현재 상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양 교과목수강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상명대학교는 10개 대학 68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

며, 전국 4년제 대학교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교양교과목은 전공과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된 수강자는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다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전 테스트 결과, 설문 문항이 응답에 평균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교과목 담당교수와 연구자가 성실한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12개 강좌 수강자 총 62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3. 4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크론바하의 알파계수와 인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 변인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4. 데이터 분석

4.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4. 1. 1 신뢰도 검증

변인의 세부 영역의 문항들 중 다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문항의 척도가 간격척도인 경우에 크론바하 알파계수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전자정보원 경험 측정 문항과 인터넷서비스 경험 문항에서 네 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전체 알파계수 값이 상향되어, 이들 네 문항은 차후의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체 측정 문항들의 알파계수 값은 0.669부터 0.867까지의 값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4. 1. 2 타당도 검증

경험 변인, 태도 변인, 능력 변인의 정보의 평가 및 통합 영역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테스트된 모든 문항들의 공통분산치가 대체로 사회과학에서의 경험적 기준치인 0.4이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인터넷서비스 경험 문항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두 개의 문항이 있어, 이들 문항은 차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변인들의 세부 항목들이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되어, 측정도구가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4. 2 변인의 기초 통계량

4. 2. 1 응답자 개인적 배경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성별 분포는 여성이 435명(69.3%), 남성이 193명(30.7%)으로 여성에게 집중되며,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이 295명(47.0%)으로 비교적 많고, 그 다음으로는 2학년(21%), 4학년(16.6%), 3학년(15.4%)의 순이다. 전공계열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계열 273명(43.5%), 이공계열 247명(39.3%), 예체

능계열 99명(15.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4. 2. 2 노출 변인의 기초 통계량

도서관이용교육에서 전체 응답자의 71.8%가 노출이 없고, 도서관이용교육에 노출된 응답자의 79.7%가 1~2회 노출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들이 대학 이전에 공식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대학의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참여가 대체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교육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노출이 있으며, 노출 빈도는 1회부터 4회까지 고르게 분포된다. 인터넷 교육에서는 응답자의 99.7%가 노출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에 노출된 응답자의 88.9%가 1~2회 노출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관련 교과목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류방란 2003), 또한 응답자 소속대학의 경우에도 교양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많은 응답자들이 정규교과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이용과 인터넷 접속 환경은 응답자 모두 필요할 때 즉시 집이나 학교 등에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접속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정보화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의 노출 형태별 분석 결과,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형태 분석에서, 도서관오리엔테이션에 의한 노출이 17.4%, 도서관안내책자에 의한 노출이 14.0%, 도서관견학에 의한 노출이 6.1%, 도서관특강에 의한 노출이 4.6%, 온라인원격이용자교육에 의한 노출이 3.8%, 정규교과목에 의한 노출이 3.7%, 그리고 교과목 일부에 의한 노출이 3.0%인 것으로 나

타난다. 컴퓨터교육 노출 형태 분석에서, 교과목의 일부에 의한 노출이 65.9%, 사설학원수강에 의한 노출이 55.3%, 정규교과목에 의한 노출이 49.4%,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화교육에 의한 노출이 11.1%로 나타난다. 또한 인터넷교육 노출 형태에서는 교과목의 일부에 의한 노출이 58.0%, 사설학원수강에 의한 노출이 33.4%, 정규교과목에 의한 노출이 31.8%, 공공기관 정보화교육에 의한 노출이 15.0%로 나타난다

4. 2. 3 경험 변인의 기초 통계량

경험 변인 세부 항목 측정치의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비스 점수가 4.01점으로 가장 높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3.8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인쇄정보원은 2.49점, 전자 정보원은 2.30점으로 비교적 낮다.

인쇄정보원 경험이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0.6%(441명), 전자정보원 경험이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1.3%(448명)에 해당하여, 학술적인 정보원과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대한 경험은 비교적 높아서 응답자의 88.6%(551명)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통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87%(546명)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

4. 2. 4 조언 변인의 기초 통계량

조언 변인 세부항목 측정치의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 조언 측정 문항의 평균은 2.47점으로 비교적 낮고,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들의 조

언 정도를 긍정적인 것으로(5점 척도에서 3점 이상) 평가한 응답자는 157명(25%),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471명(75%)으로 나타났다. 조언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470명(74.8%)이 긍정적으로(3점 이상) 평가하여 교수진의 조언은 적으나, 그 유용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4. 2. 5. 태도 변인의 기초 통계량

태도 변인 세부영역별 측정치의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 태도 변인 측정 문항의 평균치는 정보지식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에서 3.60점, 정보 윤리에 대한 태도에서 3.84점, 그리고 태도 측정 문항 전체 평균이 3.72점으로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측정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탐색전략 수립에서 비교적 자신감이 없으며, 반면에 정보 필요성 인식과 인용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를 대체로 높게 평가하였다.

4. 2. 6 능력 변인의 기초 통계량

능력 변인 측정 문항은 모두 20문항으로, 항목별로 분석한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정보요구의 인식 및 표현, 정보접근, 정리 측정 문항 정답률]

이 문항들의 정답률은 평균 62.6%이며, 정보원의 특성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32.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응답자들이 2차정보원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보접근에 관련된 문항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항과 청구기호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체 평균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네티켓에 관한 질문의 정답률은 91.9%로 인식이 비교적 바르게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평가/통합 측정 문항 기초 통계량]

정보평가와 통합 측정 문항은 5점 척도 평가 문항이다. 측정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3.4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적합한 정보의 제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활용 측정 문항 기초 통계량]

정보활용 측정 문항은 활용능력의 수준을 상, 중, 하의 세 등급으로 표시하는 문항이다. 컴퓨터활용능력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문서작성 및 편집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에서 91.6%가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계산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프로그램의 활용능력과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 및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에서는 각각 75.4%와 71.3%가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출과 경험의 높은 측정치가 실제 능력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활용능력에서 이메일서비스의 활용능력에 있어서는 91.5%, 블로그 및 미니홈피 운영에 있어서는 89.4%,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파일 다운로드에 있어서는 96.2%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인터넷이 정보검색과 일상생활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출과 경험 변인의 높은 측정치와 관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2. 7 태도 능력 간 비교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사용된 태도와 능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태도 평균은 73.90점, 능력 평균은 66.13점으로, 능력이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태도와 능력 모두 낮은 점수대(0점~49.9점)에서는 각각 50명씩으로 전체의 8.0%에 불과하며, 중간 점수대(50점~79.9점)에서는 태도 326명(51.9%), 능력 520명(82.8%)이 분포되어 있고, 높은 점수대(80점~100점)에서는 태도 252명(40.1%), 능력 58명(9.2%)이 분포되었다.

4. 3 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유의확률은 0.05이하인 경우 ($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은 상관계수가 0.3 혹은 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설 1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노출 빈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노출빈도에 따라 응답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태도와 능력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1-1 ~ 가설 1-6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노출 수준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능력 분석결과

구분	응답자수 (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정보리터러시 능력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도서관 이용교육 노출	노출 1회	82	75.61	15.44738	40.00	100.00	64.90	11.88987	34.00	85.67
	노출 2회	59	77.23	14.41047	39.05	100.00	68.27	11.98119	42.11	91.44
	노출 3회	24	72.86	16.71186	27.62	96.19	66.20	12.20338	42.89	90.33
	노출 4회	10	71.43	16.59926	40.95	96.19	68.84	11.13986	48.56	88.44
	합계	175	75.55	15.31194	27.62	100.00	66.44	11.93086	34.00	91.44
		F=0.735, p=0.533				F=1.053, p=0.371				
컴퓨터 교육 노출	노출 1회	153	71.66	15.53326	26.67	100.00	63.57	11.78240	10.67	91.67
	노출 2회	159	72.93	15.75322	25.71	99.05	65.80	11.03593	35.00	90.33
	노출 3회	200	74.91	13.67544	27.62	100.00	66.49	10.38578	39.78	89.00
	노출 4회	107	76.32	15.76549	27.62	100.00	69.71	10.09121	44.67	93.56
	합계	619	73.84	15.11520	25.71	100.00	66.15	11.01767	10.67	93.56
		F=2.567, p=0.054				F=8.818*, p=0.000				
인터넷 교육 노출	노출 1회	444	72.60	15.13645	25.71	100.00	65.25	11.27994	10.67	91.67
	노출 2회	114	76.27	12.82528	42.86	98.10	67.92	10.19416	39.89	85.33
	노출 3회	45	76.44	18.40518	27.62	99.05	68.52	11.00671	40.89	93.56
	노출 4회	20	81.67	14.42662	55.24	100.00	70.16	9.26971	48.56	82.56
	합계	623	73.84	15.11520	25.71	100.00	66.13	11.08059	10.67	93.56
		F=4.286*, p=0.005				F=3.564*, p=0.014				

* $p < 0.05$

가설 1-1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노출 빈도가 극히 적은 노출 5회, 6회 7회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네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집단별 정보리터러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가설 1-2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노출 빈도에 따라 집단 간 정보리터러시 능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가설 1-3 컴퓨터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현격하게 응답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노출 빈도 5회를 제외하고, 네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컴퓨터교육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 점수도 71.66점부터 76.32점까지 증가하지만,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 컴퓨터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노출 빈도가 1회부터 4회로 증가함에 따라, 능력 점수도 63.57점에서 69.71점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능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p < 0.05$),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가설 1-3과 1-4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컴

퓨터이용환경 및 교육의 노출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못한 반면에 정보리터러시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정보활용 능력에는 기여하지만, 정보리터러시 개념 및 중요성의 인지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5 인터넷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응답자의 수가 적은 노출 빈도 5회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네 집단간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교육 노출 빈도가 1회부터 4회까지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1-5는 채택되었다.

가설 1-6 인터넷교육 노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네 개의 집단 간 정보리터러시 능력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 점수도 65.25에서 70.16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1-6은 채택되었다.

가설 1-5와 1-6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터넷교육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인터넷 환경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구비되었고, 정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향상을 가져왔음을 암시한다.

가설 2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각종 정보원 및 정보기술에 대한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경험 변인 측정 문항의 점수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의 세 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구성은, 상 30%, 중위 40%, 하위 30%를 목표로 하였다. 세부항목별 문항의 평균점수를 순위대로 나열하였을 때, 동일한 평균점수를 갖는 응답자가 동일한 집단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여, 세부항목별 인원 수는 일정하지 않다. 태도와 능력은 가설1의 검증에서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일원배치분

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2-1 ~ 2-8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2-1 인쇄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인쇄정보원 경험에 따른 태도는 상위집단 78.01점, 중위집단 73.43점, 하위 집단 70.99점으로 경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p < 0.05$)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 인쇄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쇄정보원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능력 점수도 높게 나타난

<표 3> 경험 수준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능력 분석결과

구분	응답자수 (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정보리터러시 능력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쇄 정보원	상위	184	78.01	13.82259	27.62	100.00	67.56	11.36228	38.00	90.33
	중위	205	73.43	14.37662	27.67	100.00	66.45	10.07737	39.00	91.67
	하위	236	70.99	16.07153	25.71	100.00	64.75	11.58800	10.67	93.56
	합계	625	73.01	15.13707	25.71	100.00	66.13	11.09017	10.67	93.56
			F=11.620*, p=0.000				F=3.476*, p=0.032			
전자 정보원	상위	180	79.37	13.14695	27.62	10.00	68.21	10.23694	10.67	89.00
	중위	258	72.60	14.47079	26.67	96.19	65.59	10.91286	38.00	91.44
	하위	190	70.50	16.38350	25.71	100.00	64.89	10.23694	34.00	93.56
	합계	628	73.90	15.12811	25.71	100.00	66.13	11.07459	10.67	93.56
			F=18.471*, p=0.000				F=4.737*, p=0.009			
컴퓨터 프로그램	상위	166	80.96	11.24821	40.00	99.05	71.28	9.31307	40.89	89.00
	중위	267	74.38	14.02379	26.67	100.00	66.55	10.16471	37.78	93.56
	하위	190	67.01	16.59115	25.71	100.00	61.07	11.50063	10.67	91.44
	합계	623	73.89	15.13988	25.71	100.00	66.14	11.06236	10.67	93.56
			F=42.973*, p=0.000				F=43.204*, p=0.000			
인터넷 서비스	상위	212	78.28	13.26994	26.67	100.00	68.28	10.09244	41.33	93.56
	중위	245	73.33	14.94386	26.67	100.00	66.83	10.78957	35.00	90.33
	하위	171	69.29	16.09976	25.71	98.10	62.47	11.78693	10.67	91.44
	합계	628	73.90	15.12811	25.71	100.00	66.13	11.07459	10.67	93.56
			F=17.928*, p=0.000				F=14.384*, p=0.000			

* $p < 0.05$

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2-3 전자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정보원 경험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가설 2-4 전자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정보원 경험 수준에 따라 능력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가설 2-5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경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 점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가설 2-6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컴퓨터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가설 2-7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라 정

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태도 점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7은 채택되었다.

가설 2-8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서비스 경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5$), 가설 2-8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가설 2 검증 결과를 보면, 각종 정보원과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실제로 경험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험 세부영역과 태도, 능력 세부영역들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미약하기는 하나 경험은 정보리터러시 태도, 능력과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과학에서 상관관계를 용인하는 기준인 상관관계 계수 0.3이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태도와 능력 모두에서 인쇄정보원이나 전자정보원에 대한 경험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기술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경험과 정보리터러시 태도·능력간의 상관관계분석

경험	정보리터러시 태도			정보리터러시 능력				
	정보지식인의 특성	인용	저작권	정보표현	정보접근	정보평가 통합	정보활용	정보윤리
인쇄정보원	0.207*	0.144*	0.183*	-	-	0.244*	0.157*	-
전자정보원	0.266*	0.163*	0.204*	-	-	0.139**	0.224*	-
컴퓨터 프로그램	<u>0.433*</u>	<u>0.328*</u>	0.202*	-	0.234*	<u>0.366*</u>	<u>0.537*</u>	0.118*
인터넷 서비스	<u>0.392*</u>	0.218*	0.106*	-	0.107*	<u>0.326*</u>	<u>0.304*</u>	0.128*

* p < 0,05

Neely(2001)는 인쇄정보원 전자정보원에 대한 경험과 정보리터러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경험과 능력 그리고 경험과 태도 사이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의 미약한 상관관계와 대조적이다. 한편, 이정연(2005)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웹사이트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라 정보활용능력 자가진단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특히 인터넷 이용시간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제시한 바 있다.

가설 3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조언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조언 변인을 측정항의 문항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의 세 집단을 구성하였다. 태도와 능력은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집단간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3-1과 가설 3-2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설 3-1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정보리터러시 태도 점수는 조언 수준에 따라 다르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가설 3-2 교수진의 조언 수준에 따라 정보리

〈표 5〉 조언 수준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능력 분석결과

구분	응답자수 (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정보리터러시 능력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위	225	75.63	14.54058	26.67	100.00	67.76	10.95356	40.78	90.33
중위	265	72.94	15.13256	26.67	100.00	65.09	11.82136	10.67	93.56
하위	138	72.93	15.90053	25.71	98.10	65.47	10.05036	35.00	91.67
합계	628	73.90	15.12811	25.71	100.00	66.13	11.07459	10.67	93.56
F=2,289, p=0,102					F=3,881*, p=0,021				

* p < 0,05

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집단의 능력이 가장 높고,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점수 차이는 근소하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p < 0.05$),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의 분석을 종합하면, 상위집단이 태도와 능력 모두 우수하지만,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능력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에서는 하위집단이 중위집단보다 더 우수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술한 기초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조언이 거의 정보이용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언 정도는 미약하나, 조언의 유용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조언이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4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에 대한 노출, 각종

정보원 및 정보기술에 대한 경험, 정보이용과 관련한 교수진의 조언을 독립변인으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태도, 정보리터러시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응답자는 태도와 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0%집단, 중위 40%집단, 하위 30%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분석에는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가설 4-1 정보리터러시 태도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인터넷교육에 대한 노출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beta = 0.224, p < 0.05$), 중위집단의 경우에는 교수진의 조언정도가 정보리터러시에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고 ($\beta = 0.192, p < 0.05$), 하위집단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beta = 0.208, p < 0.05$)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집

〈표 6〉 집단별 정보리터러시 태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영향 요인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β	t	유의확률	β	t	유의확률	β	t	유의확률
(상수)		36.811	0.000		33.747	0.000		7.110	0.000
도서관이용교육노출	0.032	0.428	0.670	0.049	0.787	0.432	-0.046	-0.624	0.533
컴퓨터 이용교육 노출	0.076	0.907	0.366	0.071	1.119	0.264	0.001	0.013	0.989
인터넷 교육 노출	0.224	2.607*	0.010	0.010	0.152	0.880	-0.001	-0.009	0.993
인쇄정보원 경험	-0.001	-0.013	0.989	-0.007	-0.107	0.915	0.057	0.647	0.519
전자정보원 경험	0.102	1.204	0.230	-0.031	-0.471	0.638	0.161	1.861	0.065
컴퓨터 프로그램 경험	-0.039	-0.467	0.641	0.046	0.616	0.539	0.208	2.231*	0.022
인터넷 서비스 경험	0.074	0.937	0.350	0.023	0.329	0.742	0.075	0.848	0.398
조언정도	0.046	0.514	0.608	0.192	2.598*	0.010	0.056	0.655	0.513
조언의 유용성	-0.049	-0.530	0.597	-0.007	-0.091	0.928	0.030	0.342	0.733
	F=2.007*, R ² =0.048			F=1.591*, R ² =0.020			F=2.860*, R ² =0.087		

* $p < 0.05$

〈표 7〉 집단별 정보리터러시 능력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영향 요인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β	t	유의확률	β	t	유의확률	β	t	유의확률
(상수)		22.635	0.000		23.500	0.000		12.824	0.000
도서관이용교육노출	0.004	0.053	0.958	0.060	0.980	0.328	0.044	0.521	0.603
컴퓨터 이용교육 노출	0.050	0.699	0.485	0.063	1.001	0.318	0.100	1.485	0.139
인터넷 교육 노출	-0.041	-0.559	0.577	0.070	1.087	0.278	-0.041	-0.630	0.529
인쇄정보원 경험	-0.010	-0.134	0.893	-0.090	-1.328	0.186	-0.012	-0.162	0.871
전자정보원 경험	0.222	3.007*	0.003	0.157	2.320*	0.021	-0.154	-2.210*	0.028
컴퓨터 프로그램 경험	0.396	4.666*	0.000	0.343	5.034*	0.000	0.457	6.245*	0.000
인터넷 서비스 경험	0.067	0.850	0.396	-0.032	-0.047	0.627	0.143	2.007*	0.046
조언정도	-0.023	-0.299	0.765	0.081	1.157	0.251	0.053	0.724	0.470
조언의 유용성	-0.048	-0.619	0.537	-0.133	-1.831	0.068	0.009	0.120	0.904
	F=8.327*, R ² =0.263			F=5.680*, R ² =0.148			F=9.178*, R ² =0.287		

* p < 0.05

단별로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가설 4-2 정보리터러시 능력 수준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에서는 전자정보원 경험과컴퓨터프로그램 경험이 정보리터러시 능력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경험(상위집단: β=0.396, p < 0.05, 중위집단: β=0.343, p < 0.05), 전자정보원 경험(상위집단: β=0.222, p < 0.05, 중위집단: β=0.157, p < 0.05)의 순으로 나타나 컴퓨터프로그램 경험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 요인 모두 중위집단보다는 상위집단에서의 β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상위집단에서의 영향력이 좀 더 강력함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의 경우는 전자정보원 경험, 컴퓨터프로그램 경험, 인터넷서비스 경험이 정보리터러시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컴퓨터프로그램 경험과 인터넷서비스 경험은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정보원 경험은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위집단의 경우 전자정보원 경험이 적을수록,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서비스 경험은 많을수록 정보리터러시 능력 점수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즉, 전자정보원에 대한 경험이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에서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β =0.457, p < 0.001), 다음으로 전자정보원 경험(β=-0.154, p < 0.05), 인터넷서비스 경험(β =0.143, p < 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에 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β값이 더 크게 산출되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은 정보리터러시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하위집단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

집단과 중위집단은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동일하며, 하위집단은 다르므로 가설 4-2는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5 개인적 배경에 따라 정보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이 개인적 배경인 응답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년은 개인의 성별이나 전공계열과는 달리, 재학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기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재학기간이 가장 짧은 1학년과 재학기간이 가장 긴 4학년 간의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5-1 성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도 변인 측정 전체 문항에서 여성이 3.74점으로 남성의 3.6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전체 차

〈표 8〉 성별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분석결과

구분	성별	응답자(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t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지식인 특성	남	193	3.47(69.4)	0.67593	1.860	0.063
	여	435	3.37(67.3)	0.64289		
인용	남	193	4.05(81.0)	1.07404	-2.630*	0.009
	여	435	4.29(85.7)	1.00305		
저작권	남	193	3.29(66.0)	1.24023	-2.753*	0.006
	여	435	3.56(71.3)	1.10639		
전체	남	193	3.60(72.0)	0.82207	-2.053*	0.041
	여	435	3.74(74.7)	0.72256		

* p < 0.05

〈표 9〉 성별과 정보리터러시 능력 분석결과

구분	성별	응답자(명)	정보리터러시 능력		t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의 인식 및 표현	남	193	2.07(51.7)	0.99510	-1.174	0.241
	여	435	2.17(54.3)	1.01986		
정보 접근	남	193	4.25(70.9)	1.48352	3.620*	0.000
	여	435	3.82(63.6)	1.34803		
정보 평가 및 통합	남	193	3.47(69.4)	0.65545	0.123	0.902
	여	432	3.46(69.2)	0.57154		
정보활용	남	193	2.28(75.8)	0.42219	0.067*	0.002
	여	435	2.17(72.3)	0.37948		
정보윤리	남	193	2.11(70.3)	0.74552	1.031	0.303
	여	435	2.04(68.0)	0.79795		
전체	남	193	2.84(67.6)	0.47749	3.270*	0.001
	여	435	2.73(65.5)	0.47298		

* p < 0.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05$). 태도 변인 세부 항목에서 정보지식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에서 남자가 3.47점으로 여자보다 높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인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성이 4.29점으로 남성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 < 0.05$), 저작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05$).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가설 5-2 성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2.84점, 여성이 2.73점으로 남성이 더 우수하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p < 0.05$). 능력 변인 세부항목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정보의 인식 및 표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정보평가 및 통합과 정보윤리는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정보 접근과

정보활용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05$).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성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에서의 차이는, 태도에서는 여성이, 능력에서는 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보이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소양에 대한 측정은 없다. 본 연구와 연령기준은 다르지만 서진완(2000)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설 5-3 학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이 세부 영역과 전체에서 모두 1학년 학생들보다 우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설 5-3은 기각되었다.

가설 5-4 학년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 학

〈표 10〉 학년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분석결과

구분	학년	응답자 수(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t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지식인 특성에 대한 태도	1학년	295	3.36(67.2)	0.60859	-1.958	0.068
	4학년	104	3.57(71.5)	0.61855		
인용에 대한 태도	1학년	295	4.28(85.6)	1.00544	-1.843	0.085
	4학년	104	4.36(87.1)	0.84668		
저작권에 대한 태도	1학년	295	3.43(68.7)	1.12556	-1.674	0.090
	4학년	104	3.58(72.2)	1.09449		
전체	1학년	295	3.69(73.8)	0.73260	-1.769	0.078
	4학년	104	3.84(76.7)	0.67627		

* $p < 0.05$

〈표 11〉 학년과 정보리터러시 능력 분석결과

구분	학년	응답자 수(명)	정보리터러시 능력		t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의 인식 및 표현	1학년	295	2.20(55.0)	1.00204	0.327	0.776
	4학년	104	2.21(55.3)	1.01132		
정보 접근	1학년	295	3.95(65.8)	1.43123	0.298	0.731
	4학년	104	3.86(64.3)	1.55431		
정보 평가 및 통합	1학년	292	3.45(68.9)	0.59276	0.412	0.896
	4학년	104	3.58(71.5)	0.56051		
정보 활용	1학년	295	2.14(71.4)	0.38160	0.340	0.866
	4학년	104	2.26(75.3)	0.41277		
정보 윤리	1학년	295	2.14(71.2)	0.76616	0.329	0.786
	4학년	104	1.91(63.8)	0.84888		
전체	1학년	295	2.78(66.5)	0.46728	0.325	0.746
	4학년	104	2.76(66.0)	0.52573		

* p < 0.05

〈표 12〉 전공계열과 정보리터러시 태도 분석결과

구분	계열	응답자 수(명)	정보리터러시 태도		F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지식인에 대한 태도	인문사회	273	3.39(67.8)	0.63236	3.482*	0.016
	이공	247	3.47(69.3)	0.64312		
	예체능	99	3.29(65.7)	0.71951		
	무응답	9	2.92(58.4)	0.60234		
인용에 대한 태도	인문사회	273	4.33(86.7)	0.95229	3.999*	0.008
	이공	247	4.20(84.0)	1.01869		
	예체능	99	3.97(79.4)	1.18196		
	무응답	9	3.67(73.3)	1.32288		
저작권에 대한 태도	인문사회	273	3.47(69.4)	1.12783	1.045	0.372
	이공	247	3.55(70.9)	1.13197		
	예체능	99	3.34(68.2)	1.28700		
	무응답	9	3.11(62.2)	1.05409		
전체	인문사회	273	3.73(74.6)	0.69794	3.129*	0.025
	이공	247	3.74(74.7)	0.74644		
	예체능	99	3.53(70.7)	0.88834		
	무응답	9	3.23(64.7)	0.90302		

* p < 0.05

년이 4학년보다 다소 우수하다. 세부항목에서는 4학년이 정보인식 및 표현 정보평가 및 통합, 정보활용에서 우수하며, 1학년이 정보접근, 정보윤리에서 약간 우수하나, 세부항목에서의 차이와 전체적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설 5-4는 기각되었다.

가설 5-5 전공계열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태도에 차이가 있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공계열이 3.74점으로 가장 태도 수준이 높고 다음으로는 인문사회계열 3.73점, 예체능계열이 3.53점의 순이었으며, 계열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

〈표 13〉 전공계열과 정보리터러시 능력 분석결과

구분	계열	응답자 수 (명)	정보리터러시 능력		F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100점)	표준편차		
정보의 인식 및 표현	인문사회	273	2.36(59.0)	1.04463	8.177*	0.000
	이공	247	1.98(49.5)	0.94761		
	예체능	99	1.97(49.2)	0.97368		
	무응답	9	1.67(41.7)	1.00000		
정보 접근	인문사회	273	4.16(69.3)	1.01264	10.814*	0.000
	이공	247	4.02(66.9)	1.26350		
	예체능	99	3.31(55.2)	1.45101		
	무응답	9	3.00(50.0)	1.37504		
정보 평가 및 통합	인문사회	272	3.51(70.1)	2.17945	3.127*	0.025
	이공	247	3.46(69.1)	1.40435		
	예체능	97	3.40(68.0)	0.54370		
	무응답	9	2.94(58.9)	0.64093		
정보 활용	인문사회	273	3.39(72.0)	0.63236	7.539*	0.000
	이공	247	3.47(76.3)	0.64312		
	예체능	99	3.29(70.9)	0.71951		
	무응답	9	2.92(66.7)	0.60234		
정보 윤리	인문사회	273	3.90(71.3)	0.91320	7.107*	0.000
	이공	247	3.87(69.4)	0.95047		
	예체능	99	3.66(60.6)	1.12859		
	무응답	9	3.39(59.3)	1.13957		
전체	인문사회	273	2.87(66.5)	0.44219	1.333	0.263
	이공	247	2.76(66.0)	0.48413		
	예체능	99	2.53(65.4)	0.40157		
	무응답	9	2.28(66.0)	0.79351		

* $p < 0.05$

되었다($p < 0.05$). 태도 세부항목별 차이는 정보지식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이 3.39점으로 가장 높은 게 나타났으며, 이공계열 3.47점, 예체능계열 3.29 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별 차이는 유의하다. 인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4.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공계열 예체능계열의 순이며, 계열별 차이는 유의하다($p < 0.05$). 저작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다 따라서 세부 영역별로는 저작권에 대한 태도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태도 전

반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p < 0.05$). 가설 5-5는 채택되었다.

가설 5-6 전공계열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능력에 차이가 있다.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문사회계열이 2.87점으로 가장 우수하고 다음으로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계열에 따른 세부항목별 능력의 차이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의 인식 및 표현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2.36점으로 가장 높고,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이며, 이러한 전공계열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5$). 정보 접근에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가장 높고,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이며, 전공계열 간 차이는 유의하다($p < 0.05$). 정보 평가 및 통합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우수하고 ($p < 0.05$), 정보활용에서는 이공계열의 학생들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정보윤리에서는 이공계열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 < 0.05$). 전공계열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설 5-6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전공계열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태도와 성능의 수준이 우수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둘 중 어느 한쪽이 일관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요인을 측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보리터러시 영향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관련 교육과 환경에 대한 노출, 정보원 및 정보기술에 대한 경험, 정보이용 관련 교수진의 조언, 개인적 배경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 등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측정도구를 설계하여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후, 요인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도서관이용 교육 노출이, 컴퓨터교육 노출과 인터넷교육 노출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며, 형태별로도 도서관오리엔테이션에 의한 노출에 편중되어 있다. 경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경험 다른 경험 보다 많아, 인터넷 접속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알 수 있으며, 교수진의 조언 정도는 낮지만, 조언의 유용성 수준은 보통이다. 태도와 능력의 규준은 없지만, 태도의 점수는 능력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높다.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노출, 경험, 조언 수준과 개인적 배경에 따른 집단 간 정보리터러시 차이 검증에서는, 도서관이용교육 노출, 컴퓨터교육 노출, 교수진의 조언 정도를 제외하면, 독립변인들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정보리터러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구성된 상 중 하 세 집단간의 정보리터러시 영향 요인과 그 영향력 크기는 차이가 있다. 개인적 배경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주요 문제점은, 첫째,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노출, 인쇄정보원과 전자정보원 경험, 교수진의 조언 정도가 크게 낮아, 정보리터러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낮은 노출은, 인쇄정보원과 전자정보원의 약한 경험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출, 경험 조언 그리고 개인적 배경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개인별 집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정보화 선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능력이 낮아서, 장차 사회인으로서 정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의 불균형한 현상은 정보리터러시 개선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사회 전반에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분야에서 수립되어온 정보리터러시는 단순한 도서관이용기술과 정보이용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분석적 평가와 종합 그리고 윤리까지도 포함하는 고도의 복합적 능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지배적 개념은 정보접근과 전달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ICT 교육은 대학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대학에서도 대부분 교양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응답자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환경, 교육에 대한 노출 및 경험은 거의 완전하고 또한 노출과 경험이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요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정보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활용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응답자들의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노출 자체가 미약하며, 그 유형 또한 일회적 도서관오리엔테이션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리터러시와 같은 복합적 능력은 현재와 같은 교육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쇄정보원, 전자정보원에 대한 경험 수준이 정보리터러시 태도와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정보리터러시 능력 상위와 중위 집단에 대하여 전자정보원 경험이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며, 반면에 하위 집단에서는 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전자 정보원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가 능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대하여 정보원과 정보이용을 망라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은 또한 개인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듈화되어, 기존 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일종의 인증과 같은 강제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습득된 정보리터러시 능력이 대학교육 전체를 통해 학문별 교육에 적용되어 소위 전생애에 걸친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진의 노력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수진의 정보 이용에 대한 조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대학교육이 일방적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해 습득된 정보리터러시가 전공별 경험의 한계로 완성될 수 없다. 한편 교수진의 조연 수준에 비하여 조연의 유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도 정보리터러시 태도가 우수한 집단에서 조언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수진의 정보이용 관련 조언의 확대는 정보리터러시의 향상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담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의 통괄 하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기구가 되고, 산하에 정보리터러시 분과가 구성되어 관중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수행 및 평가를 위한 표준화검사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

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이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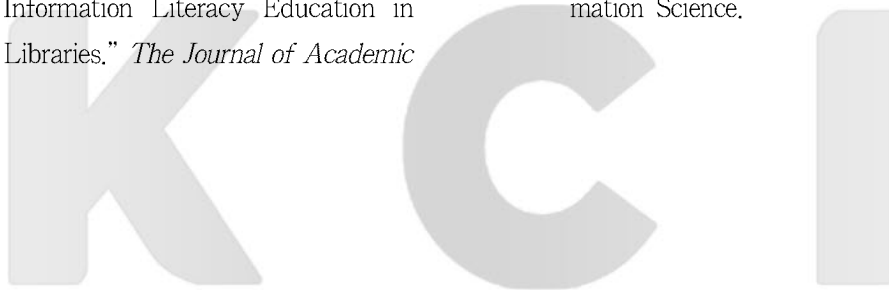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분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수행되었던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대학생 정보리터러시 관련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또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확대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리터러시 영향 요인을 탐구하며, 종단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프로그램의 비교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 - K세대(Knowledge Generation) 육성과 국민의 지식 역량 향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2. 『e-Campus, 지식공동체 구현을 위한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고영만. 2004. 대학생을 위한 정보문해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1(4): 67-87.
- 노형진. 2001.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류방란. 2003. 『제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분석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현, 조신섭, 김성수. 2004. 『한글 SPSS』. 서울: SPSS 아카데미
- 윤상림. 2005.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온라인 튜토리얼 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정연.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현실. 2003. 텔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322.
- 정은숙. 2001. 『대학에서의 정보소양교육이 정보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 차종상. 2002. 『대학교서관 이용자 교육이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Chicago: ALA.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hicago: ACRL.
- Bawden, D. and L. Robinson. 2002. "Promoting Literacy in a Digital Age: Approaches to Training for Information Literacy." *Learned Publishing*, 15(4): 297-301.
- Bruce, C. 1997. *The Seven Faces of Information literacy*. Adelaide: Aslib Press.
- Doyle, C. S. 1992. *Development of a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Outcome Measures within Nation Education Goals of 1990*.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Arizona University.
- Eisenberg, M. B. and R. E. Berkowitz. 1996.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J: Alex Publishing.
- Kurbanoglu, S. S. 2003. "Self-Efficacy: a Concept Closely Linked to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6): 635-646.
- Labelle, P. R. and K. Nicholson. 2005. "Student Information Research Skills: Report on a Quebec Study on Information Literacy." *Feliciter*, 2005(1): 47-49.
- Marcum, J. W. 2002. "Rethinking Information Literacy." *The Library Quarterly*, 72(1): 1-26.
- Maughan, P. D. 2001. "Assessing Information Literacy among Undergraduates: A Discussion of the Literature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Assessment Experien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1): 71-85.
- McClure, C. R. 1994. "Network Literacy: A Role for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3(2): 115-125.
- Neely, T. Y. 2000. *Aspects of Information Literacy: A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Oxbrow, N. 1998. "Information Literacy-the

- Final Key to an Information Society.” *Electronic Library*, 16(6): 359-360.
- Shapiro, J. J. and S. K. Hughes. 1996. “Information Technology as a Liberal Art.” *Educom Review*, 31(2): 31-35.
- Samson, S. and M. S. Millet. 2003. “The Learning Environment: First-Year Students, Teaching Assistants, and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Strategies*, 19(2): 84-98.
- Warnken, P. 2004. “Managing Technology - the Impact of Technology o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2): 151-156.
- Whitehead, M. J. and C. A. Quinlan. 2003. “Information Literacy in Higher Education.” *Felciter*, 1: 22-24.
- Zabel, D. 2004. “A Reaction to Information Literacy and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1): 17-21.
- Zurkowski, P. 1974.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к с і